

“귀성여론이 大選 일차관문”

대선주자 6명 한가위 민심잡기

◇고건=정계개편 논의과정에서 ‘꽃놀이’패를 즐겨온 고건 전 총리로서는 이번 추석연휴가 자신의 정치적 행로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이 범여권 통합 신당논의에 관심을 표명한 것이 여론의 긍정적 반응을 얻어낼 경우 ‘여권 안’을 겨냥한 본격적 행보에 나설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범여권 대통합 논의를 촉발시킬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전북과 충남을 잇달아 방문한 고건 총리는 2일에는 경남 통영의 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통영 명예시민증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한가위인 6일 전후에는 외부 일정 없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박근혜=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일 독일의 한 식당에서 가진 만찬 기자간담회에서 “경선에 참여하려 한다”며 “정권을 재창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진국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경선 출마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표는 9박10일간의 독일 및 벨기에 방문 일정을 마치고 2일 귀국한다. 그는 하루 정도 가벼운 휴식으로 여독을 풀 뒤, 4일께 서울 인근의 한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대선주자들의 추석나기가 정가의 관심이다. 추석이 지나면서 대선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선 주자들은 가족이나 친지들과 추석을 쇠면서도 향후 정국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을 통해 들려오는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에 따른 대선 행보의 구체적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고향 포항을 찾은 이명박 전 시장은 1일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해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경선 출마를 여러 차례

표시한 바 있기 때문에 10여년간의 이번 고향 방문이 사실상 ‘대권 출정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전 시장은 추석연휴에는 가회동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며 경기도 이전의 부모님 묘소를 찾는 것 이외에는 향후 정치 일정과 정책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퇴임 이후 개인사무실을 낸 뒤 내륙은하 탐방, 각종 초청강연 등 시장 재임 당시 못지않게 활발하게 소화해온 강행군 일정을 잠시 접고 이날 하순부터 시작되는 해외 정책탐방을 위한 준비에 공을 들이겠다는 것이다.

◇김근태=여권 내에서는 일단 대선 주자간 결속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권 내 차기주자인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간 연대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 의장은 공식적인 추석연휴인 5~7일에는 성묘도 하고, 가족과 함께 보낸다. 휴식을 취하면서 정국 구상도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2일에는 마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과의 간담회’를 갖고, 3일에는 양재동 농협유통센터를 찾아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상인, 농민들과 호흡하는 시간을 가진다.

◇정동영=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두 달여 동안의 독일 생활을 정리하고 1일 귀국했다. 그는 귀국 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보다 희망이 있고 역동적인 국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며 “우리가 어디에서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위해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느긋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에서의 고민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다.

정 전 의장은 우선 서울 자택에서 이틀가량 휴식을 취한 뒤 4일 곧바로 고향인 전북 순창군 구림면으로 내려간다. 추석 연휴 내내 고향에 머물며 가족, 친지들과 함께 지낼 계획이다. 정 전 의장은 이 기간 동안 귀국 이후의 진로와 행보를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달말까지 호남 지역에 머물 예정이다.



고건

통영시 명예 시민증 받아



박근혜

복지시설 찾아 봉사활동



김근태

복지관서 어르신과 대화



이명박

해외 정책 대담방 준비



정동영

고향서 가족·친지와 함께



손학규

독도서 민심 장정 마무리

고건 통합신당 관심 정동영 獨서 귀국 여권 김-정 연대설

또 추석인 6일 전후에는 동생인 지만씨 내외 등 가족들과 삼성동 자택에서 조용하게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경선 참여를 선언한 만큼 이 기간 동안 정국 구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손학규=1일 대전의 한 제빵공장에서 강재섭 대표와 봉사활동을 함께 하며 민심 탐방 일정을 이어간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경선 출마와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손 전 지사가 100일간의 민심대장정이 끝나는 10일께 경선 참여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민심대장정 99일째 날에 추석을 맞이한다. 손 전 지사는 추석연휴에도 민심대장정을 이어간다. 우선 2~3일과 4일에는 각각 대구와 울산을 방문,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로하고 산업체와 재래시장 등을 찾아 추석 민심을 정취한다. 손 전 지사는 5일 울릉도에서 민심대장정을 마친 뒤 추석날(6일) 독도로 향할 예정이다.

손 전 지사가 독도를 찾는 이유는 독도경비대를 위로하는 일뿐만 아니라 ‘독도는 우리

지방선거 후유증-명드는 지역사회

행정공백·재선거... 주민피해 언제까지

- 1 극심한 편가르기
- 2 뒤집히는 정책들
- 3 인사는 복미전
- 4 판결에 떠는 단체장들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 검찰이 항소해 2심을 준비 중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박희현 해남군수는 군수 후보 이전에 둔계로 관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나 서로의 주장이 너무 상반돼 수사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석형 함평군수는 허위경력 기재 혐의로 고발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

지역사회 兩分 소용돌이

지방선거가 끝나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처럼 겪는 것이 일부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수사와 재판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예외없이 지난 5·31지방선거 후 단체장과 지방의원 가운데 일부가 선거와 관련해 조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 단체장을 비롯해 선출직 공무원들이 임기 중 재판에 계류되면 당장 행·의정공백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전남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은 당선 후 기소됐다 군수직을 사퇴한 전형준 전 화순군수를 비롯해 5~6명에 이른다.

전남지역 5~6명 조사

전형준 전 화순군수는 선거 준비과정에서 기부행위 등이 드러나 지난 9월 8일 구속됐다 같은 달 18일 사직서를 제출, 처리됨에 따라 화순군은 오는 25일 군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파행의 연속이다.

전남지역 일부 단체장들도 크고 작은 내용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조사단계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인규 장흥군수의 부인은 교회에 1억원을 헌금,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은 배우자가 선거법을 어겼다가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되도록 규정돼 있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돼 최근 1심에서

아무리 사안이 가볍더라도 일단 단체장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재판을 받게되면 공무원들과 지역사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단체장의 위법이나 비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 조장. 이럴 경우 공직사회의 혼란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지역사회가 큰 혼돈에 빠지게 된다.

선거법 위반이나 직무 관련 비리 등으로 단체장이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면 당장 반대편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현직 단체장을 중도하차시키기 위해 없는 사실을 부풀려 비방전을 확산한다.

사법부에서는 선거관련 재판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재판에 회부된 단체장 등은 변론기일을 늦추는 방법으로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 지역사회의 혼란은 그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 의원들도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질 경우 상응하는 차질을 불러온다.

빠른 재판 혼란 줄여야

따라서 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각종 비리나 탈법에 연루될 경우 정확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충분한 증거에 따른 재판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효용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끝>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마음과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 한운산복분자포

산매 한운산 복분자포

한운산복분자포는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추구하는 최고의 음료입니다. 다양한 맛과 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2.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3.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4.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5.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6.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7.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8.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9.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10.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11.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12.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13.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14.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15.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16.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17.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18.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19.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20.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21.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22.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23.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24.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25.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26.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27.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28.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29.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30.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31.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32.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33.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34.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35.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36.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37.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38.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39.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40.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41.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42.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43.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44.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45.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46.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47.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48.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49.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50.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51.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52.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53.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54.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55.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56.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57.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58.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59.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60.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61.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62.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63.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64.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65.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66.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67.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68.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69.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70.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71.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72.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73.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74.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75.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76.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77.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78.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79.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80.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81.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82.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83.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84.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85.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86.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87.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88.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89.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90.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91.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92.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93.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94.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95.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96.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97.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98.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99. 한운산복분자포 (정액)

100. 한운산복분자포 (정액)